

생화학 테러 마주한 인간 본성 그린 영화 '비상선언' 8월3일 개봉...한재림 감독, 전도연·김남길 등 출연 이병헌 "팬데믹과 묘하게 맞닿아...모두가 빠져들 것"

# 송강호 "재난 헤쳐나가는 사람들 담담한 이야기"



송강호



이병헌

다음 달 3일 개봉하는 영화 '비상선언'의 베테랑 형사 인호는 2007년작 '우아한 세계' 속 직장인 조폭 인구를 닮았다. 모두 송강호가 연기한 인호와 인구는 조직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쓴다. 표현은 서투르도 아내와 딸을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다. 송강호는 '우아한 세계'에서 한재림 감독과 처음 작업한 뒤 '관상' (2013)에 이어 '비상선언'으로 세 번째 만났다. 27일 화상으로 만난 송강호는 "감독을 알고 있다는 게 이번엔 연기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며 "한재림 감독이 추구하는 지점을 잘 알고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비상선언'의 인호는 바이러스 테러를 당한 항공기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 숙희(전도연 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실장 태수(박해준) 등 여러 인물들과 지상에서 고군분투한다. 곁을 끌어놓고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는 아내가 비행기에 타고 있어 더 절박하다. "너무 구하고 싶는데 지상에서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의 딜레마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슬프게만 또는 감정적으로만 표현해선 안 되고 너무 이성적이고 냉정하게만 생각해도 안 되겠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다. 그러나 한재림 감독은 10여 년 전부터 항공재난 영화를 구상했고 본격 작업에 들어간 때도 팬데믹 이전이다. 영화는 지난해 프랑스 칸영화제 상영 당시 "시의적절하다"는 평을 받았다. 송강호는 "처음 준비할 당시 코로나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인데도 흥미롭게 다가왔다"며 재난에 대처하는 공동체를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주문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다른 재난영화와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재난을 헤쳐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른스럽고 담담하게 담고 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생각, 평소 알고는 있지만 느끼지 못한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이번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다면 그만큼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실제 비행기로 제작한 세트 360도 회전시키는 짐벌(Gimbal)을 이용해 기내 모습을 실감나게 구현했다. 그러나 송강호는 지상에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탓에 기내 분량 촬영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생각도 살짝 있었고, (재해를 연기한) 이병헌에게 세트장에서 한 번도 안 나오고 연기해서 부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짐벌이라는 기계를 한 번 보니 정말 공포스럽

더군요. 추격 장면 촬영도 하고 비도 맞고 고생 많이 했지만, 지상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전도연과 이병헌 모두 20년 넘게 동고동락한 사이죠. 비행기와 지상으로 나뉜 상황 때문에 매번 모여서 촬영하진 못했지만 너무 반갑고 호흡이 좋았습니다." 임시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범죄도사'에 손석구가 있다면 '비상선언'엔 임시완이 있습니다." 배우 이병헌은 "비상선언'은 묘하게 팬데믹 상황과 맞닿아 있는 느낌이 있다"면서 "전 세계 모두가 깊이 이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헌이 연기한 재혁은 비행 공포증을 갖고 있지만 딸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른다. 비행 자체에 공포감을 느끼는 그는 기내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 재혁은 테러리스트 진석(임시완)의 정체를 기내에서 가장 먼저 알아챈다. "진석은 영화 시작부터 아주 불길한 기운을 관객에게 주는 캐릭터인데, 영화 속에서 그걸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건 재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딸과 함께 탄 비행기에 아주 수상한 인물이 계속 눈앞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신

경 쓰이지 않아요. 당황스러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가장 먼저 표현한다는 점에서 승객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병헌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단번에 재미있게 읽었다"며 "관객도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의 연속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기가 뒤집히는 장면은 세트를 직접 360도 회전시키며 찍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늘로 치솟고 승무원이 천장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몰입을 극대화한다. 이병헌은 "할리우드에서도 이렇게 큰 사이즈의 비행기를 360도로 돌린 적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안전벨트가 잘못돼 뚝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됐는데 그런 공포가 연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웃었다. 송강호, 전도연 등 쟁쟁한 동료 배우들과 함께 연기한 경험에 대해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촬영했다"며 웃었다. "함께 호흡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훌륭한 경우에는 자신감이 생기죠. 영화가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 '영원한 MC' 故 송해 한국방송대상 특별상



'영원한 MC' 故(고) 송해가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 특별상에 선정됐다. 한국방송협회는 한해 최고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선정하는 한국방송대상의 수상작과 수상자를 28일 발표했다.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단은 출품된 작품 234편과 방송인 51명을 대상으로 예·본심을 거쳐 작품상 24개 부문 26편, 개인상 18개 부문 18명을 선정했다. 본심 심사위원단은 1955년 데뷔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희극인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방송사(史)에 한 획을 그은 송해에게 만장일치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여했다. 작품상 중 뉴스보도 부문은 MBC '뉴스데스크'의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사건', 다큐멘터리TV 부문은 KBS 대기획 '키스 더 유니버시티', 시사보도TV 부문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가평계곡 익사사건'이 수상했다. 또 드라마TV 부문은 MBC '웃소매 붉은 끝동', 연예오락TV 부문은 KBS 설대기획 트로트 뮤지컬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뉴미디어프로그램 부문은 광주MBC '오늘도 출근' 10부작 등이 선정됐다. 개인상 가운데 최우수연기자상은 KBS 드라마 '연모'의 박은빈, 최우수예능인상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의 전현무, 최우수가수상은 MBC '쇼! 음악중심'의 (여자)아이들 등에게 돌아갔다. 영예의 대상은 9월 5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시상식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 '우영우' 시청률 15.8% 자체 시청률 최고

구교환 특별출연에 또 신기록... tvN '아다마스' 3.5%로 출발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하 '우영우')가 15%선도 돌파하며 자체 시청률 최고 기록을 다시 갱신했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방송된 '우영우' 9회 시청률은 15.8%(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우영우'는 1회 0.9% 시청률로 출발한 이후 매회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4회 만에 5%대를 돌파했고, 이후 7회 11.7%, 8회 13.1%로 지상파에서도 기록하기 힘든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9회 방송에서는 구교환이 어린이 해방을 외치는 방구뽕이라는 인물로 특별출연해 극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자칭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은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 버스를 접수해 그 안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들을 근처 야산으로 데려갔다가 체포됐다. 방구뽕의 변호를 맡은 우영우는 피해자인 초등학생들로부터 학원이 끝날 때까지 외출이 금지된 일명 '자물쇠 수업'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방구뽕을

과대망상 장애라고 변호해 감형을 받기보다는 그의 '어린이 해방' 사상을 응원하는 변론을 펼쳤다. 방구뽕은 최후진술에서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나중은 늦다. 불안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 너무 늦다"고 호소하며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어른들과 사회를 향해 일갈했다. 같은 오후 10시 30분 방송된 tvN 새 수목드라

마 '아다마스'는 3.5% 시청률로 출발했다. 계부를 죽인 친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진범을 찾는 쌍둥이 형과 동생의 이야기로 배우 지성이 동생 하우신과 형 이수현으로 분해 1인 2역 연기를 선보였다. 첫 방송에서 하우신은 해송그룹 권 회장(이경영 분)의 회고록 대필 작업을 맡기로 하고, 권 회장의 저택인 해송원에 입성한 이야기가 담겼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b>꽃게랑 약선반찬 전집</b>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계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b>금남로 사주 카페</b>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b>(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b>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b>(주)대신수산유통</b>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b>(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b>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b>문화결혼상담소</b>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b>동양철학원</b>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b>필스제화</b>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굵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b>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b>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찰떡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b>면쟁이</b>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b>법무사 황영수 사무소</b>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b>석당화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b>고전방</b>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b>남도철학원</b>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b>송가네 반찬</b>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b>다흥치마 한정식 전문</b>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b>한국기원</b>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b>초대화랑</b>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b>박당화랑</b>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					